

외식 창업자의 특성과 자질이 창업성공 및 권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대섭 · 신충섭

영산대학교 외식경영학부 교수 · 경기대학교 경영학부 시간강사

The Impact of Korean Restaurant Business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and Talents on their Successful Venture Management and Recommendation Intension of Venture Business

Park, Dae-Seob, Shin, Chung Sub

Abstract

This study is to serve the purpose of identifying how the character/ personality traits of the founders of Korean, Japanese, and Western food business influence their success and the intent to encourage others to do start their own business, by analyzing the causal relations among founders character/personality traits, business concepts, and success factors

The research team inquired into the theoretical background by referring to a variety of documents and set up research models and hypotheses. We conducted surveys with the founders of food-service businesses from home and abroad in order to identify the relations among the respective factors induced from the research models. To do this, we conducted a positive analysis for analyzing the statistical data of the questionnaire and verifying the research models.

key Word : character, personality, success factors

I. 서론

현대 선진국들의 서비스산업 비율은 국민총생산 및 취업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도 '80년대 후반 이후부터 그 비율이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서비스산업의 급격한 증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비스산업 가운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외식산업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식욕을 충족시켜 주는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으로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증가하는 산업이다(장대성, 2001).

외식산업은 노동집약적이며, 직접 고객과의 접촉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며, 소량의 다품목이 생산되고, 매출시간이 아침, 점심, 저녁 등으로 한정되어 인력관리와 공간이용이 어려우며, 식재료의 부패성, 입지 의존성 등 타 제조업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더욱이 현대사회의 식생활은 점차 글로벌화 되어가면서 가공식품의 이용과 외식기회 증가, 조식(아침식사)시장의 증가 추세, 소비자의 주문 판매 등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면서 외식서비스 산업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외식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한 가계소득의 증대와 전통적인 가사노동에 할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증가되고 있다.

외식산업의 중요성과 필요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후반에 불어 닥친 IMF 경제위기로 인해 한국 경제는 누적된 거품경제의 붕괴, 경기불황의 가속화, 기업 경영여건의 악화, 무역수지 적자폭의 가중, 부도와 도산 등으로 많은 명예퇴직자, 조기퇴직자와 실업자들이 양산되었으며, 외식점포들 역시 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장대성, 2001).

본 연구는 국내의 외식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조기퇴직자 및 실업자들을 중심으로 외식창업에 대한 높은 열기로 수많은 외식 점포들이 창업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는 외식창업에 대한 연구나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는 상태에 놓여있어 많은 외식경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국내 기존 외식창업자들의 자질과 특성이 창업 성공과 창업 권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외식 경영자나 신규 창업 예정자들에게 외식창업 성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2.1 창업정신과 창업자

2.1.1. 창업정신(Entrepreneurship)

창업정신(Entrepreneurship)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정의는 아직 도출되지 않고 있다(Wortman, 1987 ; Carnier, 1996). Schumpeter(1934)가 처음으로 창업가정신에 대해서 언급한 이래로 창업정신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상당히 변화하였다. Drucker(1985)는 창업정신을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Gartner(1985)는 창업 정신이란 새로운 조직의 창조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Schumpeter(1934)의 견해에 따르면 새로운 조직을 완전히 구성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경영하는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경영한다면 창업정신은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창업정신은 지속적인 혁신적 창조적 파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의 근본적인 원천인 창업정신은 새로운 조직의 창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Carnier, 1996). 급히 변화하는 시장 환경, 신기술의 급속한 개발, 자유무역 등으로 모든 조직은 새로운 비전과 경영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서 창업정신은 새로운 조직의 창조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조직에서 새로운 비전과 경영 방법, 기술 등을 창조해 내는 것도 포함된다(Intrapreneurship). 즉 창업정신이란 신 조직의 창조뿐만 아니라 기존조직의 혁신을 가져오는 것도 포함한다는 뜻으로 기업은 물론, 사회복지 조직, 스포츠조직 등 모든 조직에서 새로운 비전과 혁신을 가져오는 경영철학과 정신을 창업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창업정신의 특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모형들과 Dimension들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특성은 혁신정신, 위험감수, 의지 도전실천력이라 할 수 있다(Moon and Peery Jr., 1997). Moon and Peery Jr.(1997)은 창업 정신은 "혁신으로 새로운 변화를 창조하는 것" 이라는 Oliga(1972)의 의견과 새로운 변화는 반드시 위험을 초과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창업정신의 모형을 만들었다.

$$\text{Entrepreneurship} = F(\text{reward-risk})$$

Moon and Perry Jr.(1997)의 주장은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이 위험을 극복, 또는 감소시키거나 회피하면서 무에서 유의 가치를 창조하는 정신이라는 Timmons(1994)의

의견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특히 Moon and Peery Jr.(1997)은 창업에서 위험 감수 정신은 투기와는 엄격히 다르다 하고 있다. 그들은 투기는 유의 가치 창조를 위한 혁신적인 변화 의지가 없는 위험감수 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의 선행연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창업정신은 위험을 미리 예측하면서 그 위험을 극복 또는 감소시키거나 회피하면서 혁신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적극적인 새로운 변화의 창조 정신이라 할 수 있다.

2.1.2. 창업자

창업에 대한 많은 연구가 창업자는 비 창업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주장해왔으나 창업자에 대한 정의는 통일되지 않고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Brockhaus, 1980a, 1980b). 많은 학자들이 창업자가 비창업자와는 다르다고 주장해온 것은 중요한 사실이며 그 다른 이유는 창업자 자신들의 개인적 성격과 배경에서 온다고 Gartner(1985)는 밝히고 있다. 또한 Gartner(1985)는 창업자들이 비창업가들과 다른 것은 물론 창업자들간에도 창업가들과 비창업가들과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Mckelvy(1982)도 창업자가 동일 자질의 집단이라는 가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하였다. 즉 창업자는 비창업자와 다른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교육적 배경에서 양성될 수 있으며 창업자들 간에도 그들이 성장해온 배경에 따라 창업에 관한 자질은 물론 창업동기와 목적 등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창업가들의 서로 다른 배경들로 인해 창업자들도 서로 다른 특성들로서 구분 될 수 있다.

Schumpeter(1936)는 창업자를 창조적 파괴과정에 기여하는 리더라고 하면서 경제 시스템에서 새로운 구성요소들을 잘 통합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새로운 구성요소란 1) 새로운 재화나 용역의 생산 2) 새로운 생산 방법의 창출 3) 새로운 시장의 전개 4) 원료나 부품의 새로운 공급처 장악 또는 5) 기존산업의 새로운 재구성 등을 말한다. 또한 Schumpeter(1936)는 창업자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조직하여 수행하는 최고 경영자들만이 아니라 맡은 바 직분 및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내의 근로자들도 창조적 파괴에 참여 및 기여하고 있으면 포함된다고 주장하였고 Carnier(1996)도 조직 내에서 창조행위도 창업이라고 강조하여 Schumpeter(1936)의 의견을 지지하고 있다.

Leibenstein(1968)은 창업자란 시장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마케팅에 관련된 모든 자원을 총괄 경영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Kirzner(1985)는 창업자란 이익의 기회를 감지하고 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거나 충족되지 않은 수요를 보충시켜주는 선두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night(1921)는 불확실성의 회피 기질이 아주 적은 사람 즉 불확실성의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이라

고 주장한다. 그러나 Schumpeter(1934)의 주장처럼 새로운 혁신과 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벤처를 조직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창업정신으로 조직을 경영하지 않으면 창업가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부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벤처 사업자는 창업자라고 볼 수 없고 부를 획득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창조적 파괴와 불확실에 도전하는 자를 창업자라고 할 수 있다.

Watson(1998)은 개인적 배경, 창업의 동기함양, 성장 등이 창업의 성공요인으로 보았다. 또한 Morrison(1999)의 연구에 의하면 창업가는 지적이고 분석적이며 위기를 잘 관리하며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고 강한 도덕을 지니고 있으며 사업가의 기질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문적 욕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Morrison(1999)은 그의 또 다른 연구에서 창업가가 속한 사회와 문화를 창업가정신의 발현의 기초로 보았다.

Lee & Peterson(2000)은 건전한 사회적 환경, 좋은 재정적 지원상태 그리고 창업자들의 질 좋은 경험 등을 기초로 하여 동기 부여된 창업가들이 있다고 해도 그 창업가들이 속한 국가가 창업정신을 양양시키고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해주는 국가적 창업문화가 없이 경쟁력 있는 창업가들이 배출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Watson(1998)과 Morrison(1999)의 의견에 의하면 성공할 수 있는 창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가적 기질을 보유해야함은 물론 창업의 동기와 다양한 학문적 욕구가 함양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 성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Lee & Peterson(2000), Watson(1998)과 Morrison(1999)의 연구들이 함축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훌륭한 창업가는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창업가가 양성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 교육을 통해서 성장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2.2. 창업 성공요인과 성공 창업자의 특성

2.2.1. 창업 성공요인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문헌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어떠한 요인들이 창업 성공요인으로 규명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cMillan(1987)은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을 비교한 결과 성공요인은 창업팀의 특성(위험감수능력, 시장파악능력 등), 서비스와 제품특성, 시장특성(첨단기술, 시장성 등), 재무적 특성(ROI, 시장점유율 등)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Lumpkin과 Dess(1996)은 “창업으로 이끄는 과정, 관행, 의사결정을 통틀어 EO(Entrepreneurial Orientation)”이라 정의하고 자율성(autonomy), 혁신성(innovativeness), 위험감수(risk

taking), 적극성 (proactiveness), 경쟁성(competitive aggressiveness) 등을 EO의 구성 요소로 제시하고 EO와 성과간의 상관관계를 주장하였다.

Lee와 Peterson(2000)은 EO가 “창업가 정신이 구현되는가를 보여주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자율성(autonomy), 혁신성(innovativeness), 적극성(proactiveness), 경쟁성(competitive aggressiveness) 등의 4가지 요소가 창업가 정신에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쟁우위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문화적인 요인으로 힘의 거리(Power distance), 불확실성의 회피, 개인주의, 성취주의, 남자다움, 보편주의 등을 들었다.

Storey(1994)는 ① 창업가의 특성, ② 조직의 특성, ③ 성장과 관련된 전략의 특성 등을 소기업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로 제시했다. Ensley(2000)는 다른 창업가들 보다 더 큰 창업의 비전과 자신감(self-efficacy)을 가진 창업가들을 주도적 창업가(lead-entrepreneur)로 정의하고 이들이 다른 창업가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성과를 이루어 낸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였다. 그러나 연구결과는 주도적 창업가들의 우수한 능력보다는 “팀에 기반을 둔 기술”이 더 창업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Glancy(1997)는 성장과 이윤과 기존의 연구에서 규명된 창업 성공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시험하는 아래의 두 가지 방정식을 제시하였다.

$$\text{이윤} = F(\text{규모, 연령, 위치, 산업내 차이, 성장})$$

$$\text{성장} = F(\text{규모, 연령, 위치, 산업간 차이, 이윤})$$

그에 연구에 의하면 규모는 성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이윤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도시 근처에 있는 기업들이 높은 성공률을 보였기 때문에 위치 역시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재능을 가진 창업가들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Timmons(1999)는 창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회, 창조적 자원, 창업가적인 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2.2 성공 창업자의 특성

사업성공을 완전히 보장하는 기업가 특성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특성들이 사업성공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성공은 이러한 개인특성 외에 주변 인물들의 도움, 경제 환경으로부터의 기회 등 많은 외부 환경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창업 성공에 필요한 모든 특성을 갖춘 완전한 창업가란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다

(장대성, 2003).

보통 창업가들은 동업자, 협조자, 관리자들로부터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특히 이미 성공한 기업가들로부터 벤치마킹을 통하여 바람직한 개인특성을 경험적으로 체득하고 그 성공비결을 배고 활용할 수는 수 있다. 성공한 기업가들의 공통된 행태를 연구하고,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① 적극적인 도전의식과 실패로부터 배우려는 자세, ② 주도적으로 일 처리를 하고 솔선수범함, ③ 강한 인내력과 결단력

지금까지 학자들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성공한 기업가들의 특성과 행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된다. 이러한 공통특성들은 장차 성공적 기업가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학습해야 할 사항이다.

(1) 사업의 몰입도, 결단력, 인내심: 성공한 기업가들은 사업에 대한 몰입도가 높고, 결단력과 인내심이 강하다고 한다. 특히, 많은 벤처캐피탈회사들은 투자여부의 결정에 있어 기업가가 얼마나 자신의 시간적·재정적 자원을 실제적으로 투입하고 있는가를 중시한다고 한다. 이는 사업에 대한 몰입 정도가 사업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2) 강한 성취욕구와 성장욕구: 성공한 기업가들은 스스로 설정한 도전적인 목표를 뛰어넘는 데 주력한다. 그리고 이 목표가 달성되면 상향조정된 새로운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여 계속적으로 도전한다. 따라서 이들은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자신의 과거 실적을 계속하여 뛰어넘는 데 노력한다.

(3) 기회 및 목표 지향적: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근거하여 행동하기보다는 기회를 먼저 포착하고 자원과 전략을 거기에 맞추어 나가려는 기회 지향적 성향이 있다. 그리고 높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모든 힘을 집중하려 한다.

(4) 주도적이고 강한 책임감: 주도적으로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 한다. 그리고 일의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려 한다.

(5) 끈질긴 문제해결 노력: 하고자 하는 일에 장애요인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이를 극복하려는 욕구가 강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이에 따라 인내성이 강한 편이지만,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에 대해서는 단념도 빠르다.

(6) 낙관적 현실주의와 유머감각: 외부환경과 자신의 강점, 약점 등에 관한 냉철한 판단을 중시하는 등 매우 현실적이지만,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낙관적 자세를 견지한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등 정신적 여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7) 피드백의 활용: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재빨리 수정한다. 이에 따라 유능한 기업가들은 대부분 남의 이야기를 잘 청취하고 학습능력이 뛰어난 편이다

(8) 계산된 위험감수와 위험의 공유: 뛰어난 기업가는 도박사가 아니다. 그들은 미리

세심하게 계산을 한 후 결정을 내리며, 공동투자 또는 동업을 통해 곤장 위험을 공유하려 한다.

(9) 지위와 권력에 대한 낮은 욕구: 권력욕구보다는 성취욕구에 의해 행동한다. 지위나 권력은 성공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유능한 기업가는 독재자보다는 중재자 또는 협조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10) 정직과 신뢰: 정직과 신뢰가 없이 달성한 일시적 성공은 궁극적으로 실패한다는 신념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사업 활동을 한다.

(11) 신속한 결단과 실천, 인내심: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빠른 결정을 내리고, 곧바로 실천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 일이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거나 일의 결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

(12) 실패에 관한 적절한 관리: 실패에 실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실패를 통하여 배우려는 자세가 강하다. 비관적 상황에서 낙관을 발견하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지혜를 발휘한다.

(13) 팀 구축자이며 영웅 메이커: 유능한 기업가는 독불장군식으로 일하기보다는 열의에 가득 찬 팀을 만들어 공동으로 일을 추진한다. 또한 자기 혼자 영웅이 되기보다는 관리자들을 영웅으로 만듦으로써 동기를 부여한다. 아울러 뛰어난 기업가는 성과를 나누어 갖는 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성과 자체를 키우는데 주력한다.

위와 같은 성공기업가의 바람직한 특성은 상당한 부분이 후천적인 학습을 통하여 가능하다. 특히, 기업가가 자신의 사업에 대하여 강하게 동기유발 되었을 때 더욱 빠르게 학습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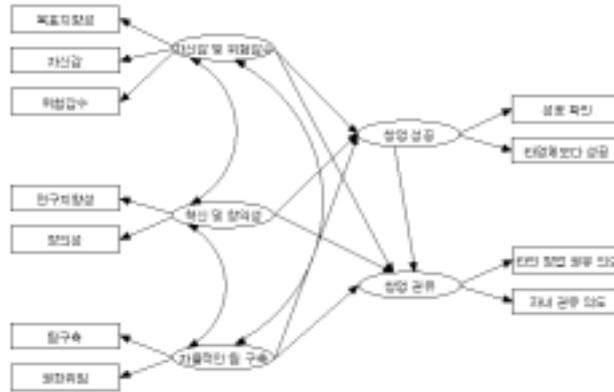
Ⅲ. 조사 설계

3.1. 연구모형과 가설 설정

3.1.1. 연구모형

위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창업자의 자질과 특성이 창업 성공 및 권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가를 <그림 3-1>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3-1> 연구 모형



3.1.2. 가설설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들을 설정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1	한국 외식 창업자의 자신감 및 위험감수 의지는 창업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가설2	한국 외식 창업자의 혁신 및 창의성은 창업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가설3	한국 외식 창업자의 권한 위임을 통한 자율적인 팀 구축 의지는 창업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가설4	한국 외식 창업자의 자신감 및 위험감수 의지는 창업 권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가설5	한국 외식 창업자의 혁신 및 창의성은 창업 권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가설6	한국 외식 창업자의 권한 위임을 통한 자율적인 팀 구축의지는 창업 권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가설7	한국 외식 창업자의 창업 성공은 창업 권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3.2. 설문지 구성과 측정도구

3.2.1. 표본의 선정

본 연구의 모집단은 한국 내의 외식업 창업자 대상들이다. 표본은 서울 및 수도권 을 중심으로 외식업 창업자들 중 비교적 규모가 큰 종업원 10인 이상의 한식, 양식, 일식 외식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300부를 배부하여 281부를 회수(회수율: 93.67%)하였으며, 이 가운데 무응답 및 부실한 설문지는 배제시키고 총 260부(유효율: 86.67%)를 본 연구에서 이용하였다. 조사기간은 2003년 5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이루어졌다.

3.2.2.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의 설문지는 선행연구 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업계전문가와 수차례 토의를 거쳐 반복수정 하였기 때문에 설문내용과 관련된 내용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선행연구 고찰에서 밝혀진 창업자의 자질 및 특성에 대한 요인들은 독립변수로서 연구 지향성과 관련된 11개 문항, 목표 지향성과 관련된 4개 문항, 자신감과 관련된 4개 문항, 팀 구축 관련된 3개 문항, 권한 위임과 관련된 3개 문항, 창의와 관련된 3개 문항, 위험감수와 관련된 3개 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종속변수로서는 창업 성공과 관련된 것은 2개 문항, 창업 권유와 관련된 것도 2개 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상의 측정 항목에 대한 변수들의 평가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법을 사용하였으며, 변수 내용 측정은 다음과 같다. ① 전혀 아님, ② 아님, ③ 보통, ④ 그럼, ⑤ 매우 그럼으로 구성하여 Median값인 3점을 중심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반응을 의미한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주방장 겸직 여부, 요리사 경력, 레스토랑에서 일한 경력, 레스토랑 창업연수, 업종, 레스토랑 월 수익, 직원 수 등으로 구성되었다.

3.2.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사회과학분야의 통계패키지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SPSS Win 10.0과 AMOS 4.0을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빈도분석과 기술적 분석, 요인분석, 확인요인 분석, 신뢰성 분석, 공분산 구조 분석 등을 하였다.

3.3.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요인분석을 통해 각각의 변수들의 추출된 요인은 <표 4-3>과 같다. 분석에서 요인별 적재된 요인 적재치를 이용하여 측정 변수로 사용하였다. 외식 창업자의 자질 및 특성 요인들의 분산에 의한 총 설명력이 70.619%이므로 요인 분석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 결과로서 추출된 요인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검정한 결과 각 요인들 간에 상관관계는 없다. 이 요인들은 본 연구의 가설 검정을 위한 개념 타당성 확보를 위한 판별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요인 내의 측정항목들 모두 상관관계가 높아 각 요인들을 설명하는 집중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이는 판별 타당성과 집중 타당성이 확보되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내용과 측정개념들은 개념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표 4-3> 외식 창업자의 특성 및 자질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문항	연구 지향성	목표 지향성	자신감	팀구축	권한 위임	창의성	위협 감수
Ⅱ-12	.818						
Ⅱ-11	.800						
Ⅱ-15	.774						
Ⅱ-14	.760						
Ⅱ-17	.715						
Ⅱ-18	.700						
Ⅱ-20	.692						
Ⅱ-19	.686						
Ⅱ-16	.664						
Ⅱ-10	.569						
Ⅱ-13	.540						
Ⅱ-29		.824					
Ⅱ-30		.806					
Ⅱ-28		.798					
Ⅱ-27		.755					
Ⅱ- 2			.770				
Ⅱ- 3			.741				
Ⅱ- 1			.736				
Ⅱ- 4			.705				
Ⅱ-25				.764			
Ⅱ-26				.747			
Ⅱ-24				.737			
Ⅱ- 8					.912		
Ⅱ- 9					.891		
Ⅱ- 5						.744	
Ⅱ- 6						.734	
Ⅱ- 7						.674	
Ⅱ-21							.756
Ⅱ-23							.732
Ⅱ-22							.654
고유치	10.100	2.843	2.541	2.091	1.882	1.329	1.107
분산(%)	20.318	10.089	9.267	8.227	7.611	7.575	7.532
누적(%)	20.318	30.407	39.675	47.902	55.513	63.087	70.619
신뢰성	0.9222	0.8600	0.8144	0.8193	0.7782	0.7731	0.7551

본 연구는 알파계수의 값을 0.5를 기준으로 신뢰성을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알파계수가 0.6~0.7이상이면 척도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탐색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뢰성 분석 결과 모든 요인들의 Cronbach 알파 계수가 모두 0.7이상으로 각 요인에 속한 항목들의 신뢰성은 확보되었다.

3.4. 변수 선정 및 조작적 정의

3.4.1. 관측요인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외식 창업자의 성공요인 사례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외식 창업자의 자질 및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요인들을 규명하였다. 이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목표 지향성

목표달성, 미래 성취만족, 목표설정, 장애극복의지 등의 내용에 대한 항목들을 조사하여 측정하였다. 이 설문 항목들에 대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1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어 이 요인을 목표 지향성이라고 정의하였다.

(2) 자신감

어려움 극복 자신감, 성공가능성, 특수훈련 소화, 경쟁자에 대한 자신감 등의 내용에 대한 항목들을 조사하여 측정하였다. 이 설문 항목들에 대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1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어 이 요인을 자신감이라고 정의하였다.

(3) 위험감수

위험감수능력,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여부, 모험심 등의 내용에 대한 항목들을 조사하여 측정하였다. 이 설문항목들에 대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1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어 이 요인을 위험감수라고 정의하였다.

(4) 연구 지향성

신 경영 방법 및 인터넷 사용여부, 학술대회 참여의지, 진학의지, 손익 토의, 매출 증대, 시장 예측, 정보수집 등의 내용에 대한 항목들을 조사하여 측정하였다. 이 설문 항목들에 대한 요인 분석한 결과 1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어 이 요인을 연구지향성이라고 정의하였다.

(5) 창의성

창업자의 공상과학 취미 여부, 문학이나 음악성, 추상적 감각 여부 등의 내용에 대한 항목들을 조사하여 측정하였다. 이 설문항목들에 대한 요인 분석한 결과 1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어 이 요인을 창의성이라고 정의하였다.

(6) 팀 구축

공동투자 여부, 공동 팀 활동, 단체운동 등에 대한 항목들을 조사하여 측정하였다. 이 설문 항목들에 대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1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어 이 요인을 팀 구축이라고 정의하였다

(7) 권한 위임

근로자에 대한 권한 위임, 자율성 위임 등의 내용에 대한 항목들을 조사하여 측정하였다. 이 설문 항목들에 대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1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어 이 요인을 권한 위임이라고 정의하였다

3.4.2. 잠재 요인의 조작적 정의

(1) 자신감 및 위험감수

목표지향성, 자신감 및 위험감수 요인으로 관측되는 잠재요인으로서 목표지향적인 사람이 성취욕이 높고 목표달성을 위해 자신감을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 있다. 그러므로 이를 자신감 및 위험감수란 잠재요인으로 정의하였다.

(2) 혁신 및 창의성

Schumpeter(1934)는 창업은 지속적으로 혁신적이며 창조적 파괴 능력을 갖는 창의성을 가진 자가 성공할 수 있다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을 혁신 및 창의성이란 잠재요인으로 측정하였으며 이는 혁신성과 창의성이라는 관측변수로 관측될 수 있다.

(3) 팀 구축과 자율성

팀을 구축하게 되면 그 팀에게 권한 위임을 하여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자율적인 팀 구축을 하나의 잠재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팀 구축과 권한위임으로 관측되어진다.

3.4.3.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창업 성공

성공에 대한 확신과, 타 업체에 비하여 성공적으로 경영이 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측정하였다. 이들 항목들은 창업 성공과 관련된 항목들이고 요인 분석 결과 1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어 이 요인을 창업 성공이라고 정의하였다.

(2) 창업 권유

다른 사람에게 권유, 자식에게 창업 권유를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측정하였다. 이들 항목들은 창업 권유와 관련된 항목들이고 요인 분석한 결과 1개의 요인으로 추출

되어 이 요인을 창업 권유라고 정의하였다.

IV. 자료 분석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표본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4-1>과 같다.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221명(85.0%), 여자 39명(15.0%)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설문지에 응답을 하고 있고, 연령에서 50대가 101명(38.8%), 40대가 87명(33.5%), 30대가 51명(19.6%)으로 창업을 하고 있다. 대체로 30·40·50대가 주로 하고 있고 또한 20대가 11명(4.2%), 60대가 10명(3.9%)으로 질문에 응답하고 있다.

학력에서 고졸 이하가 94명(36.2%), 4년제 대졸이 73명(28.1%), 전문대졸이 59명(22.8%), 석사가 33명(12.7%)로 나타났다. 그리고 박사도 1명(.4%)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방장 겸직 여부에서는 안한다가 180명(69.2%), 자주 한다가 33명(12.7%), 항상 한다가 28명(10.8%), 가끔 한다가 19명(7.3%) 순으로 응답을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창업을 하면서 창업자가 주방을 겸직을 하고 있지 않고 대개가 주방장을 고용하여 창업을 하고 있다.

요리사 경력에서 없다가 156명(60.0%), 9년 이상이 78명(30.0%), 3년 미만인 16명(6.2%), 6~9년 미만이 8명(3.1%), 3~6년 미만 2명(.8%)으로 나타났다. 레스토랑에서 일한 경력은 9년 이상이 94명(36.2%), 없다가 78명(30.0%), 6~9년 미만이 36명(13.8%), 3~6년 미만이 34명(13.1%), 3년 미만이 18명(6.9%) 순으로 나타났다. 레스토랑 창업 연수는 한식이 86명(33.1%), 양식이 87명(33.5%), 일식이 87명(33.5%)으로 골고루 창업을 하고 있다.

레스토랑 월수입은 대개 500만원 이하가 12명(4.6%), 500만에서 1,000만원 미만이 69명(26.5%),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미만이 46명(17.7%),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미만이 38명(14.6%), 2,000만원에서 2,500만원 미만이 46명(17.7%), 2,500만원 이상이 49명(18.8%)로 대개 월 5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인구 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221	85.0
	여	39	15.0
업종	한식	86	33.1
	양식	87	33.5
	일식	87	33.5
레스토랑 월 수익	500만원 이하	12	4.6
	500만~1000만 미만	69	26.5
	1000만~1500만미만	46	17.7
	1500만~2000만미만	38	14.6
	2000만~2500만미만	46	17.7
	2500만원 이상	49	18.8
연령	20대	11	4.2
	30대	51	19.6
	40대	87	33.5
	50대	101	38.8
	60대 이상	10	3.9
학력	고졸이하	94	36.2
	전문대졸	59	22.7
	4년제 대졸	73	28.1
	석사	33	12.7
	박사	1	.4
요리사 경력	없다	156	60.0
	3년 미만	16	6.2
	3~6년 미만	2	.8
	6~9년 미만	8	3.1
	9년 이상	78	30.0
레스토랑 일한 경력	없다	78	30.0
	3년 미만	18	6.9
	3~6년 미만	34	13.1
	6~9년 미만	36	13.8
	9년 이상	94	36.2
레스토랑 창업 연수	창업 후 3년 미만	24	9.2
	3~6년 미만	41	15.8
	6~9년 미만	33	12.7
	9~12년 미만	59	22.7
	12년 이상	103	39.6

4.2. 인과관계 분석 결과

4.2.1. 확인 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 항목에 대하여 탐색요인 분석 결과 도출된 창업자의 특성 및 자질에 관한 3개의 잠재요인들에 대한 단일 차원성 확인 및 요인들과 관측항목들의 관계 검증을 위해서 AMOS 4.0 패키지를 이용하여 연구 모형에 대한 확인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적상태를 도출하기 위해서 실시한 확인요인 분석의 결과는 <표 4-2>과 같이 나타났다.

<표 4-2> 확인요인 분석

구 분	결과치
Chi-square	21.103
자유도	9.000
유의도	0.012
RMSR	0.011
GFI	0.977
AGFI	0.927
NFI	0.954
CFI	0.972

<표 4-2> 확인요인 분석결과에 의하면 Chi square는 유의하나 일반적으로 이 Chi square는 표본이 200개가 넘는 경우 유의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GFI는 0.977, AGFI는 0.927로 적합 기준치를 넘는다. 또한 RMSR은 0.011로 적정기준치인 0.07보다 0에 훨씬 더 근접하고 있어 확인요인 분석의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설문지에서 선행연구에서 만들어진 3개의 잠재요인들을 관측하기 위하여 제시된 항목들이 7개의 요인들로 확인되고, 3개의 잠재 요인들에 대한 단일 차원성도 확보되었다.

4.2.2. 공분산구조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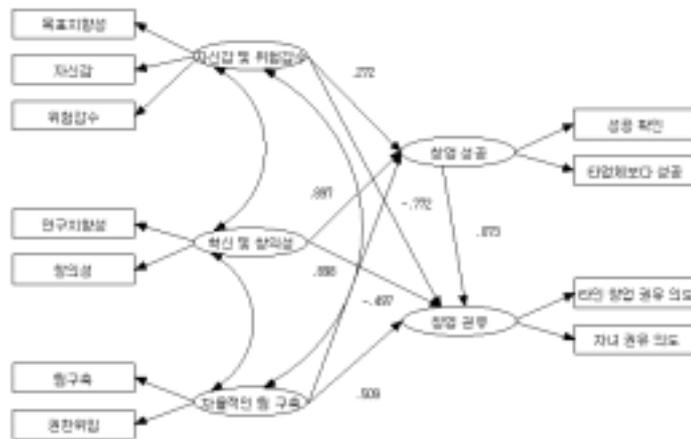
위의 선행 연구들의 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그림 3-1>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먼저 구조분석의 모형 적합도는 <표 4-3>과 같다.

<표 4-3> 모형의 적합도

구분	결과치
Chi-square	118.908
자유도	34
유의도	.000
RMSR	0.025
GFI	0.921
AGFI	0.847
NFI	0.911
CFI	0.934

<표 4-3> 모형의 적합도에 의하면 Chi square는 유의하나 GFI(적합도 지수)는 0.921, AGFI(수정된 적합도 지수)는 0.847 으로 기준치보다 약간 낮다. 그러나 RMSR (평균잔차제곱근지수)은 0.025로서 적정 기준치보다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임을 감안할 때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

<그림 4-1> 연구모형의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연구가설 검정을 위하여 AMOS(Analysis Moment of Structure)를 이용하여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4-1>과 <표 4-4>는 구조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4-4> 경로 분석 결과

개념간의 경로	계수	C R	유의도	채택여부
자신감 및 위험감수 -> 창업 성공	0.272	-	-	채택
혁신 및 창의성 -> 창업 성공	0.897	4.914	0.000	채택
자율적 팀구축 -> 창업 성공	-0.497	-2.763	0.006	기각
자율적 팀구축 -> 창업 권유	0.509	-	-	채택
자신감과 위험감수 -> 창업 권유	-0.772	-5.857	0.000	기각
혁신 및 창의성 -> 창업 권유	0.898	-	-	채택
창업 성공 -> 창업 권유	0.073	0.861	0.389	기각

V. 결 론

5.1.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창업자의 자신감 및 위험 감수의지가 창업 성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창업 권유에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식업을 창업할 때 자신감이나 위험 감수 의지가 있어야만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기존의 창업자들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창업을 하려는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외식 창업을 권유할 때 기존의 창업자들의 경험상 단지 자신감이나 위험감수 의지만으로 창업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창업자의 혁신 및 창의성이 창업 성공과 창업 권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자들이 외식업을 창업할 때 남의 것을 모방하여 창업하기 보다는 창업자 자신이 직접 연구하고 점포를 만들지 않으면 창업에 성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창업자의 권한 위임을 통한 팀 구축 의지가 창업 성공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창업 권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국외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 국내의 외식사업의 특성상 아직까지 타인을 잘 믿지 못하여 남에게 맡기지 못하고, 팀 구축을 통한 팀 플레이보다는 창업자의 개인적 능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고, 다른 사람과 동업하여 성공한 사례가 국내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권한 위임을 통한 팀 구축 의지가 창업 권유 의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의지를 갖고 있는 창업자들은 21세기 글로벌 경영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들은 21세기가 벤처 창업의 시대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창업을 권유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창업자의 성공이 창업 권유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의 외식사업 창업자들이 이전에는 외식업에 대한 사회의 낮은 인식, 3D 업종의 어려움, 체계적인 교육과 경영시스템의 부재, 인력양성의 어려움 등 외식산업은 타산업에 비해 창업에 성공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하여 타인에게는 외식업 창업을 쉽게 권유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5.2. 연구 한계 및 미래 연구

본 연구가 보다 더 일반화되려면 모든 외식업종의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외식산업은 더욱 다양화되어 모든 업종의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업종인 한식, 양식, 일식 업종의 창업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앞으로 연구할 과제는 이미 세계적인 외식 브랜드(베니건스, TGI, 스카이라, 맥도널드, KFC 등)들이 국내에도 많이 진출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의 외식 창업자들과 국내의 외식 창업자들의 자질과 특성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국내의 외식 브랜드 및 창업자들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외식 창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도출되어 앞으로 신규 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장대성, "한국과 미국위 창업교육 비교를 통한 한국 벤처창업 교육전략 수립", 한국컴퓨터정보학회지, 제8권, 제1호, pp.129-139, 2003.
- [2] 장대성 홍석기, "한국 대학생의 창업교육효과에 관한 성별 비교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14권, 제1호, pp.105-124 2001.
- [3] Brockhaus, R. H., "The Effect of Job Dissatisfaction on the Decision to Start a Busines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18, No. 1, 37-43.,1980a.
- [4] Brockhaus, R. H., "Risk Taking Propensity of Entrepreneur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23, 509-520.1980b.
- [5] Carnier, C. "Intrapreneurship in Small Business: An Exploratory Stud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pp.5-20, Fall, 1996.
- [6] Gartner, W. B., "A Conceptual Framework for Describing the Phenomenon of New Venture Cre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0, No. 4, 696-706. 1985.
- [7] Gartner, W. B., "Who Is an Entrepreneur? is the Wrong Question",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Vol. 12, No.4, pp.11-22, 1989.
- [8] Glancey, Keith, Creig, Malcolm, and Pettigrew, Malcolm, "Entrepreneurial Dynamics in Small Business Service Firm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Vol.4, No.3, 1998.
- [9] Kirzner, I. M., *Discovery and the Capitalist Proce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1985.
- [10] Knight, F., *Risk, Uncertainty, and Profit*, Boston: Houghton-Mifflin.,1921.
- [11] Lee, Sang M. and Peterson, Suzanne J., "Cultur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Global Competitiveness", *Journal of World Business*, Vol. 35, No. 4, 401-416. 2000.
- [12] Leibenstein, H, *Entrepreneurship and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38:2.,1968.
- [13] Lumpkin, G. T. and Dess, Gregory G.,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1, No.1, 1996.
- [14] McKelvey, B., *Organizational Systematics- Taxonomy, Evolution*,

- Classific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1982.
- [15] McMillan, I. C., Zeman, L. and P. N. Subba Narasimaha, "Criteria Distinguishing Unsuccessful Ventures in the Venture Screening Pro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987.
- [16] Morrison, Alison, "Entrepreneurship: What Triggers IT?"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Vol. 6, No. 2, 1999.
- [17] Moon, H. C. and Peery, Jr. N., "Entrepreneurship in international Business: Concept", Strategy and Implementation, Entrepreneurship. 1997.
- [18] Schumpeter, J. A.,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 [19] Storey, D., Understanding the Small Business Sector, Routledge, London, 1994.
- [20] Timmons, J. A., New Venture Creation :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Irwin McGraw-Hill, Illinois, Fourth Edition, 1994.
- [21] Timmons, J. A.,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21st century, Homewood, Illinois, Irwin- McGraw-Hill, Fifth Edition, 1999.
- [22] Wortman, M. S. "Entrepreneurship: An Integrating Typology and Evaluation of the Empirical Research in the Field", *Journal of Management*, Vol.13, No.2, pp.259-270. 1987.
- [23] Watson, K., Hogarth-Scott, S., and Nicholas Wilson, "Small Business start-ups: Success Factors and Support Implic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Vol. 4, No. 3. 1998.